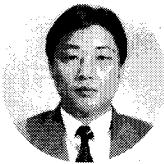


사람 사람들

경북도 지부회의 참석



■ 임연학 회장은 2월 15일 상주에서 열린 경북도지부회의에 참석, 98년 협회사업추진 방향과 중점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회원 스스로 국산생약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애써줄 것을 당부했다.



■ 이종용 명예회장은 최근 환율인상으로 국산 한약재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점을 감안, 수출대상국의 시장동향등 한약재 수출정보 수집을 위해 미국 등지로 출장을 다녀왔다.

사삼재배기술 강의

■ 이웅황 경기도 안성군 사무소장은 오는 23일 전북



농촌진흥원에서 관내 생약재배농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배기술 강좌에 강사로 초청돼 사삼재배기술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생약재배전망' 강의



■ 조만식 기획실장은 오는 24일 오전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전북농촌진흥원에서 생약재배농민들을 대상으로 '유통현황과 생약재배 전망'을 주제로 특강할 예정이다.

통상 88차 이사회 오는 13일 오후 2시

한국생약협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통상 88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오는 30일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열릴 이날 이사회에서는 98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한다.

와 측

남전무 차남 '해성' 군

남정학 전무 차남 해성군이 이시복씨의 차녀 상열양과 오는 29일 일요일 오후 1시 서울 전농동 크리스탈 부페 웨딩홀 4층에서 화족을 밝힌다.

종자구함

황기 강할 천궁 백하수오 종자구함: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이관수
연락처: 0685)394-2046

황금종자 구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7
연락처: 0343)21-6280

당귀묘 종자 구함: 인천광역시 옹진군 농촌지도소 김정환. 연락처: 032)880-2568

황백, 개화, 쪽 종자구함: 경남 산청군 문익점 면화재배지 김현수
연락처: 0596)73-2445

황기종자 구함: 안산시 본오동 805-3번지 오용원
연락처: 0345)407-3343

종자, 묘 판매

고본, 산당귀, 강활묘 있음 9천주 이상(3백평식재용)
연락처: 0373)78-5033

두충 8천주(5년생)발매기
매매 하실분: 소재지-충주시 증원군 살미면 세성동 362번지. 연락처-02)832-3446 장광선

내 방

△배영두 전사무국장 △박만종 고문 △이종용 명예회장 △황인구 부회장 △정형모 부회장 △이문섭 부회장 △허성무 부회장 △이옥용 이사 △박재문 이사 △박영일 이사 △윤창권 경기 의정부시 공관장장 △이성덕 경기 구리시 사무소장 △염경섭 이사 △임경학 이사

미리본 감사
이모저모

협회 운영 무엇이 문제인가

'재정부실' 근본문제

○...3월1일 중국 장기출장을 앞둔 최병호 감사는 원래 3월12일로 예정돼 있는 감사일을 미리 앞당겨 지난 2월27일 협회 사무국과 매장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해 감사했다. 최감사는 그간 5년간의 감사경험을 통해 꼭 해결해야할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협회의 재정기반 부실을 꼽았다. 우선 협회재정의 양기둥이라 할 수 있는 안정기금과 상설매장이 거시적측면에서 모두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고, 빠른 처리 '권고'

○...특히 안정기금운영

과정에서 지난 96년에 수매한 황기 4만근이 아직까지 재고로 남아있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최감사는 "모든 약초가 그렇듯 황기도 묵을수록 약효도 떨어지고 상품성도 저하되므로 당년 처리되어야 할 품목인데도 시세가 크게 떨어진 지금까지 재고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며 이로인한 손해액은 단순한 시세차액 말고도, 묶어둠으로서 발생하는 창고비용과 자금으로 회전했을 경우 발생될 이자율을 감안하면 손해규모는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심의위 역할 강조

○...또 안전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기금지출에 대한 심의기능에 편중된 반면 기금조성실적은 미약한 부분을 함께 꼬집는 한편 "이대로 '제살 깎아먹기식' 운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협회존립 여부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

최감사는 또 "문제는 지난 96년 회기말 감사때 지적된 동일사항이 보완되지 않은채 1년이 지난 지금 재거론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재고물량의 경우 빠른 시일안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책임있는 예산심의돼야"

○...예산안 책정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집행 후 그 손실액에 대한것까지 이사들이 책임지는 것이 '원안」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최감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와 함께 협회 임법기관으로서 소신있게 예산심의기능을 수행할 책임이 이사들에게 있음을 강조하기도.

수익사업 창출 노력

○...한편 사무국내의 회비징수율은 85%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에도 회비징수액 만으로는 협회 운영이 어려므로 한계가 있는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새로운 수익사업 창출 여부가 앞으로 협회 운영구조에 커다란 변화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중앙회원모집

국산한약재는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우리 생약에 관심있는 모든 분

- 혜택: 1. 생약재배기술지도
2. 계약재배 및 수매알선
3.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5%할인
4. 생약정보제공
5. 한국생약보 발송

구비서류:

1. 가입서 양식(본부비치)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증명사진 2매

회비:

개인-4만6천원(연회비 3만6천원, 가입비 1만원)
단체-13만원(연회비 12만원, 가입비 1만원)

가입문의:

협회사무국 전화 02)967-8133

안내문

한국생약협회는 그동안 생산농민과 소비자 여러분들께 생약재배기술과 시세동향 등 다양한 생약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회보인 한국생약보를 월1회 발행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신청으로 온나라가 금융대란을 겪고 있는 요즘 저희 협회도 거품빼기식 예산절감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회원이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분들 모두에게도 무료로 생약보를 보내드렸으나 발송비부담이 너무 큰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는 4월부터는 협회 중앙회원이 아닌 경우 연간 발송료 명목으로 소정의 구독료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서 생약보를 보내드리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생약보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는 20일까지 협회사무국(TEL:967-8133)으로 연락, 구독신청 하시기 바라며 연간발송료(1만원)도 함께 보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상의에 보답키 위해 저희 한국생약보는 보다 알차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약전문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구좌번호 : 우체국 010983-0006910 ●
- 예금주 : 한국생약협회 ●
- 문의전화 : 967-8133, 969-6875 ●